

접두어 ‘trans-’의 의미와 ‘탈경계 인문학(Trans-Humanities)’ 연구에 관한 소고

김연수

1. 들어가는 말

‘인문학 위기’가 수년 전부터 논의되었고, 학계를 넘어 마치 유행어처럼 널리 회자되고 있다. 최근에는 ‘통합’, ‘통섭’, ‘융합’ 등 다양한 개념들이 거론되면서, 인문지식과 과학지식을 아우르고자 하는 움직임도 보인다. 학문들 사이의 경계는 “필연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역사적인 것”(최재천, 주일우 5)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학문의 분류체계 및 학계 시스템 자체에 대한 성찰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통합’이나 ‘융합’을 거론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져온 전문화, 세분화, 분과화의 경향 및 각 상이한 영역의 경계를 지우고 완전한 결합을 꾀하는 것은 아니지만(송성수 236), 왜 학문 간의 상호작용이 이 시대에 요청되는지,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학문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과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등의 질문들을 던지게 된다.

김연수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HK교수

김연수_접두어 ‘trans-’의 의미와 ‘탈경계 인문학(Trans-Humanities)’ 연구... 29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제의식에 관심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기존 인문학에 대한 성찰에 초점을 맞추어, 그 대안으로서 시도하는 ‘탈경계 인문학 Trans-Humanities’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기존 인문학과 변별적으로 첨가된 수식어 ‘탈경계’ 혹은 ‘trans-’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탈경계’는 곧 ‘trans-’로 번역될 수 있는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러한 논의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등 논의되어야 할 문제들은 산적해있다. 본고에서는 일차적인 작업으로 “Trans- Humanities”에서 접두어 ‘trans-’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 문제점에 접근하기 위해서 소위 ‘cultural turn’이후 ‘인문학’의 자기성찰과 그 분과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문화학적인 패러다임을 인문학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국내외 논의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multicultural’, ‘intercultural’ 이외에 ‘transcultural’, ‘transnational’ 등의 개념들이 부각되면서 논의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독일 현대철학자 볼프강 뵐쉬(Wolfgang Welsch, 1946-)가 이 시대에 적합한 문화론적 컨셉으로 “트랜스문화성(Transkulturalität)”을 제안한 바 있다. 아래에서 다루겠지만 그의 제안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엔 서구의 시각을 묵과할 수 없어서, ‘trans-’라는 개념의 역사적 사례를 조사해볼 필요가 있었다. 접두어 ‘trans-’를 최초로 사용한 경우가 바로 라틴아메리카 문화권의 ‘transculturation’이라는 개념이다. 이 경우에는 볼프강 뵐쉬의 컨셉과는 사뭇 다른 의미층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접두어 ‘trans-’ 사용의 역사적 사례, 즉 라틴아메리카의 ‘트랜스문화화¹⁾ transculturation’론과 최근 독일철학계에서 ‘트랜스문화성’을 제안

1) 서구 문화이론의 개념들을 한국어로 옮기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자명한 과제이나, 현실적으로 번역자마다 다양하게 번역되면서 여전히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한다. ‘transculturation’라는 개념도 ‘문화횡단’, ‘통문화’, ‘초문화’로 번역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딱히 어느 하나를 가장 적합한 번역으로 선택·사용할지 생각해보면,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trans-’의 보다

한 별쉬의 논의를 중심으로 ‘trans-’의 의미층위 및 이에 대한 독일의 문화학적 인문학 담론 안에서의 논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로써 탈경계 인문학 연구단이 지향하는 ‘trans-’의 의미를 규정해보고 구체적인 실천 전략으로서 ‘간학제적’ 혹은 ‘탈학제적’ 인문학 연구의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문화론의 맥락에서 본 접두어 ‘trans-’ 의미

1) 라틴아메리카의 ‘트랜스문화화’

(1) 페르난도 오르티스

‘트랜스문화화(transculturation)’ 라는 용어는 이미 1940년 라틴아메리카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바 있다. 바로 쿠바의 인류학자 페르난도 오르티스(Fernando Ortiz, 1881-1969)가 자신의 저서 『쿠바적 대위법-담배와 설탕』에서 이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오르티스는 이 책에서 쿠바 역사와 문화의 특성을 밝혀냄으로써, 콜롬버스와 알렉산더 폰 훔볼트 이후 “세 번째 쿠바 발견자”로 불리기도 한다(우석균, 「페르난도」 182). 그는 일상의 기호품이자 쿠바의 특산물인 ‘담배와 설탕’에 주목하고, 이 두 가지 생산물을 알레고리적으로 의인화한 시인 후안 루이즈 Juan Ruiz의 시적 이미지를 차용하여 “담배씨와 설탕부인의 싸움”으로 쿠바의 역사를 이야기한다(Ortiz 3f.). ‘담배씨와 설탕부인의 싸움’은 신대륙의 발견, 즉 유럽과 아메리카의 문화적 접촉과 분리해서 설명할 수 없는 지점이다. 왜냐하면 15세기에 콜롬버스에 의해 담배는 유럽으로, 설탕은 라틴아메리카로 소개되고, 유럽의 기호품으로 이 두 상품의 수요가 급증하자 라틴

적확한 번역을 모색하는 동안 우선 여기에서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트랜스’로 옮겨 사용하고자 한다.

김연수_ 접두어 ‘trans-’의 의미와 ‘탈경계 인문학(Trans-Humanities)’ 연구... 31

아메리카에서 생산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상품의 생산방식과 그 사회문화사적 측면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다.²⁾

오르띠스는 담배와 설탕의 분명한 차이를 대위법적으로 부각시키고, 나아가 토착문화와 외래문화를 뚜렷이 대비시키지만, 단순히 이 양자의 대비에 그치지 않고 이 양자의 복잡한 문화적 상호작용과 반작용, 근절 혹은 섞임과 변용의 관계를 밝힌다. 오르띠스는 쿠바의 아주 다양한 현상들은 바로 “여기 쿠바에서 일어났던 아주 복잡한 문화 변형의 결과”요, “쿠바의 실제 역사는 곧 쿠바의 서로 맞물린 트랜스문화화의 역사”라고 보았다(Ortiz 98). 최초의 트랜스문화화 현상은 구석기 인디언에서 신석기 인디언으로 되고, 그들은 스페인 사람들이 가지고 온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결국 사라졌으며, 그 후 쉽 없이 신대륙으로 밀려오는 백인 이주민들의 흐름,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프리카 흑인들의 물결이 쿠바로 밀려오면서 트랜스문화화의 현상이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쿠바의 문화를 유럽문화와 아프리카문화와 라틴아메리카문화 사이의 비대칭적인 관계 속에서 복잡한 상호작용을 일으킨 결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때 그는 모든 문화접촉은 서로 만나는 문화들 사이의 힘의 역학관계에 의해 규정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Schmidt-Welle 86). 이러한 힘의 역학관계와 맞물려 일어나는 문화상호 간의 작용을 제대로 포착하기 위해 그는 ‘트랜스문화화’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트랜스문화화’는

2) 설탕의 생산은 대토지, 대규모 노동력, 기계설비를 갖춘 공장과 철도가 필요해 외국의 산업자본과의 결탁이 불가피했고 원주민 인디언이 사라진 뒤에는 전적으로 흑인노예의 노동력으로 생산되었다. 반면에 담배는 재배에서 생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숙련도와 세심함이 요구되어 주로 주인이 직접 챙겨야 할 필요가 있어서 최소한 19세기까지는 소농장과 가내수공업 수준으로 주로 *크리올로*(criollo) 소농과 같은 백인들에 의해 생산되었다(Fernando Coronil xxii; 유재현 69-70). 그렇게 수세기에 걸쳐 담배를 생산, 수출해오다 결국 담배생산도 설탕의 경우처럼 외국투자자들의 통제 하에 걸린 형태로 대량생산하게 되었어도 여전히 ‘담배씨’와 ‘설탕부인’의 대조적인 특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음을 오르띠스는 보여준다(참조, Fernando Coronil xxvii).

[...]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넘어가는 과정의 상이한 단계들을 더 잘 표현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의 본질은 결국 앵글로-아메리카의 단어 acculturation이 함의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문화를 단순히 수용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개념은 필연적으로 이전 문화의 상실 혹은 근절, 즉 탈문화화(deculturation)라고 정의될 수 있을 범한 것을 내포하고 있다. 게다가 이 개념은 문화접촉에 뒤따른 새로운 문화적 현상들의 창조, 즉 신문화화(neoculturation)라고 부를 수 있는 단계를 함의하고 있다. [...] 모든 문화적 통합의 결과는 개개인의 재생산과정의 결과와 유사하다. 즉 자식들은 항상 양쪽 부모의 어떤 면을 닮기는 하지만 그들 각각과 다를다. [...] 쿠바의 역사는 아메리카의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더욱 과도기에 있는 모든 인간그룹들의 치열하고 복잡하고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트랜스문화화의 과정이다. 트랜스문화화라는 개념은 쿠바 역사를 이해하는 데에 근본적이고 불가피하며, 비슷한 이유에서 아메리카 역사 일반을 이해하는 데에도 그렇다. (Ortiz 102-103)

이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오르티스가 ‘트랜스문화화’ 개념을 제시한 배경에는 영미 인류학의 기본패러다임에 대한 그의 비판의식이 있다. 1940년 오르티스가 자신의 저서를 발표하기 이전 1930년대 중후반에 미국의 인류학자들 사이에서도 문화접촉 및 교류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36년 로버트 레드필드(Robert Redfield)의 ‘문화접변(acculturation)’이라는 개념이 유행하였다. 레드필드의 ‘문화접변’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문화들의 혹은 문화들 사이의 교류’ 그 이상을 의미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르티스는 이 개념을 레드필드가 ‘동화 assimilation’라는 개념의 의미로 받아들여, (대)도시의 문화, 즉 중심부 문화와 주변부 문화가 접촉했을 때 주변부 문화가 사라지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이해했다(Schmidt-Welle 86). 이러한 오해에도

불구하고 오르띠스는 ‘트랜스문화화’라는 개념사용으로 당시 미국 인류학자들의 시각과는 달리 중요한 새로운 의미를 보여주었다. 바로 문화 간 접촉과 교류에 있어서 당시 지배적인 ‘유럽중심적 문화접면 패러다임’(크라니어스커스 322)에 대하여 라틴아메리카의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르띠스의 ‘트랜스문화화’ 개념에서 탈식민주의적 시각을 보는 논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우석균, 「페르난도」 192f.), 유럽의 관점에서 인종적 위계질서에 따라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는 과학적 재현체계와의 갈등적 관계를 설명할 수도 있는 비판적인 시각을 열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크라니어스커스 321, 주9). 다시 말하면 오르띠스의 ‘트랜스문화화’에서 ‘trans-’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문화적 혼종화의 과정성을 잘 표현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문화적인 섞임과 혼종화에도 불구하고 ‘탈문화화’ 혹은 ‘신문화화’라는 단계의 개념을 설정한다는 데서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경계 의식 및 외부의 문화적 자극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볼 수 있다. 이는 오르띠스가 영미 패러다임에 대해 비판적인 거리를 취하기 위해 이 개념을 제안했다는 그의 출발의식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2) 앙헬 라마

오르띠스의 ‘트랜스문화화’ 개념은 1970년대 초 우루과이 문화이론가이자 문학비평가인 앙헬 라마(Angel Rama)에 의해 다시 논의된다. 라마는 자신의 저서 『라틴 아메리카의 서사적 트랜스문화』에서 오르띠스의 ‘트랜스문화화’ 개념을 문학작품 분석에 적용하면서 보다 구체화하였다. 라마도 오르띠스의 오해를 알고는 있었다. 그러나 라마는 오르띠스의 개념에 함축되어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시각” 때문에, 즉 문화접촉의 수동적인 혹은 종속적인 측면을 당연시하는 것에 대해 저항하는 시각 때문에 오르띠스의 트랜스문화화라는 개념을 수용하였다(Schmidt-Welle 86).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트랜스문화화에 관한 오르띠스의 도식은 문화접변, 탈문화화나 신문문화화로 이루어지는 데 반해, 라마는 탈문화화가 진행되고 있을 때에 이미 병행적으로 재문화화(reculturation)가 수반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지역문화들이 어떤 외부의 문화적 자극에 저항하느라 자기 고유의 문화를 신문문화화(neoculturation) 과정으로 이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라마는 트랜스문화화 과정이 끝나면 결국 “전체 문화체계의 재구조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Schmidt-Welle 86-87).

라마의 이론에서 눈에 띄는 점은 무엇보다도 “생물학적이고 민족적인 종적인 방향으로 연구한”(크라니어스커스 322) 오르띠스와는 달리 주로 문화작품을 분석대상으로 하면서도 대도시, 특히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있는 메트로폴리스와 지방문화 사이에서 빛어지는 문화접촉 현상 및 근대화(Modernisierung)의 문제에 주목하는 것이다. 라마는 라틴아메리카 내에 있는 지방들에서 나타나는 트랜스문화화의 과정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시골지방, 예를 들어 카리브해 연안 지방들에 메트로폴리스가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수도나 국제적인 연결망을 갖춘 대도시를 거쳐 시골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구분한다. 이러한 문화적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우세한/지배적인 문화가 우세하지 않은/피지배적인 문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본다. 이는 오르띠스와 정반대의 방향이다. 오르띠스는 모든 문화접촉이 힘의 관계에 의해 규정된다고 인식하면서도 『쿠바 민속에서의 흑인들의 춤과 연극』과 같은 자신의 인류학적인 작업에서는 아프로 쿠바의 음악이 ‘백인’ 쿠바음악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즉 피지배 문화가 지배적인/우세한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한다. 오르띠스나 라마, 모두 문화 간의 접촉과 교류에서 상호관계적인(reziprok) 움직임보다는 어느 한 문화가 다른 한 문화로 이동하는 움직임, 문화전이에 주목한 것이다(Schmidt-Welle 87).

이 두 문화이론가 모두 자신의 이론과 실제 문화분석 작업에서 모순이 없지는 않다. 오르띠스의 경우에는 ‘문화적 혼혈주의(mestizaje)’성향 때

문에, 라마의 경우에는 그가 수용한 ‘근대화이론 및 종속이론’의 문제 때문에 모순이 있다고 보기도 한다(Schmidt-Welle 87-88). 즉 ‘트랜스문화화’ 개념을 사용하는 이 두 저자들이 모두 결과적으로는 문화의 복수성에 대한 인식보다는 단수로서의 “통일적인 라틴아메리카의 문화”를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르띠스의 경우에는 혼혈적으로(mestizo) 혹은 혼합주의적으로(syncretic) 특징지워진 라틴아메리카 대륙의 전체문화에 흐르는 통일적인 면모를 트랜스문화화 과정을 거친 결과로 제시하고 있다. 라마의 경우에는 메트로폴리스로부터 라틴아메리카가 받고 있는 ‘근대화’ 압력이나 문화적인 종속성 때문에 결국 라틴아메리카 지방/지역문화의 변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면서 결국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서구의 근대화가 변형된 형태로 관철되고 있다고 본다.

(3) 라틴아메리카적 ‘트랜스문화화’의 콘텍스트성

위와 같은 비판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트랜스문화화’를 주장한 이 두 이론가들이 오늘날 문화론의 맥락에서나 ‘trans-의미’를 제고하는 본고에서 다시 거론되는 이유들이 있다. 오르띠스 작업은 아프로쿠바니즘(afrocubanismo), 쿠바문화의 기원은 아프리카임을 입증하고자 했던 일종의 담론 창출이었다. 1898년 미국과 스페인 전쟁으로 쿠바가 스페인의 식민통치로부터 독립한 이후 권력의 상당부분을 프리요요가 차지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인종적, 계급적, 문화적 장벽들을 쳐놓았다. 오르띠스는 이런 장벽을 넘어 아프리카 문화를 복원하는 것이 쿠바에서 진행된 트랜스문화화 현상을 입증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보았던 것이다(우석균, 「페르난도」 192). 그는 흑인-백인이라는 인종주의적 이분법의 구도를 거꾸로 답습하지 않으면서 흑인과 플라토의 위상을 끌어올려 쿠바 국민국가에 편입시키는 담론을 만들고자 했다(우석균, 「라틴아메리카」 286). 1920, 30년대 라틴아메리카에 유행한 혼혈이론

이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당면과제가 낳은 문화담론이었던 것처럼, 트랜스문화론 역시 신생독립국가인 쿠바의 국가적 통합이라는 맥락에서 나온 담론이었다. 영토와 인종과 젠더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문화들이 뒤섞여 새로운 문화가 생성되고 그 새로운 문화는 언제나 다른 문화와의 접촉으로 다시 변화될 거라는 오르띠스의 트랜스문화론에는 서구문화에 대한 쿠바문화의 ‘차이’를 주장하기 위해 이 개념을 도입하는 탈식민주의적 시각이 내포되어 있다(우석균, 「페르난도」 193). ‘트랜스문화화’라는 개념 자체를 영미 인류학의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서 제시한 것처럼 말이다.

다시 오르띠스의 ‘트랜스문화화’를 도입하면서 지역/지방문화와 대도시문화 사이의 긴장과 충돌을 고찰한 라마의 작업은 물론 문학텍스트를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문학텍스트는 지역문화와 외래문화가 이데올로기적인 퍼포먼스를 행사하는 정치성을 띤 공간이었다(우석균, 「라틴아메리카」 287). 그는 주로 외래문화가 지배적인 근대화된 도시와 전통문화의 터전인 농촌을 대립시키면서 지역문화가 어떻게 근대화와 외부의 충격을 완화시키면서 지배문화를 수용·변형하여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가, 지역문화가 외래문화의 지배아래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한 것이다(우석균, 「라틴아메리카」 287). 작가 아르구에다스(José María Arguedas)에 관한 글을 쓰면서 라마는 지방문화와 지방문화의 문화적 특수성을 보이는 형식의 정전을 만들어 후세를 위해 보존하고자 했던 것(Schmidt-Welle 88)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의 이러한 문화론 이면에도 오르띠스와 크게 다르지 않은 시대적 상황이 있다. 즉 라마가 활동한 시기가 1970년대인데, 이때는 쿠바혁명(1953)의 유토피아가 군부독재 아래 퇴색되던 암울한 현실이었고, 무엇보다도 군부정권이 서구의 이익을 대변하며 외래문화의 전면적인 유입을 촉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트랜스문화론을 통해, 즉 외래문화의 영향으로 지역문화의 변형을 통해 그 지역문화의

생존을 고민한 라마의 의식은 오르띠스의 의식과 기본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오르띠스와 라마의 트랜스문화론을 각기 그 생성배경의 맥락에서 생각하면 ‘trans-’의 의미가 기존경계를 와해시키고 새로이 유입되는 문화 환경 속에서 거듭 새로이 만들어가면서도 기존의 정체성을 단순히 벗어 버리는 작업이 아니라, 역으로 스스로 독자적이고,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체성을 찾는 끝없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문화론자 모두 토착문화와 외래문화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사실은 정치적, 문화적 ‘경계’를 상당히 의식하는 가운데 섞임과 변용 및 새로운 창조를 말한 것이다. 문화적 혼성을 다루면서 이러한 ‘경계’에 대한 의식을 가지는 라틴아메리카 문화론은 최근에 독일어권 논의에서 부각된 바 있는 ‘트랜스문화성’과는 현저하게 다른 의미의 층위를 함축하고 있어서 함께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2) 볼프강 뵐쉬의 ‘트랜스문화성’

독일어권에서 ‘트랜스문화성’의 개념으로만 오늘날의 구조, 특히 지구화와 지역화 현상이 동시적으로 포착되는 이 시대의 문화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고 다소 과격한 견해를 표방한 독일현대 철학자가 바로 볼프강 뵐쉬이다. 그는 1992년부터 수차례에 걸친 논문발표³⁾를 통해 “트랜스문화성” 개념 및 이론적 구상을 구체화하였다. 그의 구상은 다른 여러 문예

3) Wolfgang Welsch는 「트랜스문화성 - 문화 해체 이후 삶의 형식들 Transkulturalität-Lebensformen nach der Auflösung der Kulturen」(1992), 「트랜스문화성 - 오늘날 문화의 변화된 상태 Transkulturalität -Zur veränderten Verfassung heutiger Kulturen」(1997), 「트랜스문화성 - 오늘날 문화의 퍼즐형식 Transculturality -The Puzzling Form of Cultures Today」(1999) 등의 글들을 통해 ‘트랜스문화성’에 관한 개념을 발전시키고 구체화하여 2000년에 「트랜스문화성. 지구화와 지역화의 사이에서 Transkulturalität -Zwischen Globalisierung und Partikularisierung」라는 논문을 통해 ‘트랜스문화성’ 개념을 정의했다.

학자나 문화이론가들에 의해 비판도 많이 받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논의에서 반드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뵐쉬는 우선 전통적인 '문화' 개념들의 한계를 살피면서 오늘날 현실을 설명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밝힌다. 소위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라고 하는 '다문화성(Multikulturalität)'과 '상호문화성(Interkulturalität)'의 개념도 고찰하지만 이 개념들도 전통적인 개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트랜스문화성' 개념을 제안한다.

(1) '공모양', '섬모양'의 전통적인 문화개념 비판

뵐쉬는 전통적인 문화개념의 특성을 일례로 헤르더를 들어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헤르더는 '문화'를 곧 '한 민족의 꽃'이라 일컬으며 기본적으로 문화를 한 민족의 언어적, 영토적 경계와 일치시킨다는 것이다. "달린 공모양" 혹은 "자율적인 섬"의 이미지로 표현될 수 있는 헤르더의 개념은 내적으로 자기 고유의 것에 집중하여 동질화를 추구하고 외적으로는, 즉 타문화에 대해서는 경계를 긋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개념으로서 문화적 인종주의, 분리주의, 정치적 갈등과 전쟁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현대와 같이 고도로 세분화된 사회는 동질성을 기본으로 하지도 않고 동질성에 이를 수 없으며 그 자체로 상이한 삶의 방식, 상이한 문화들이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현실을 진단하기 때문에 헤르더적인 문화개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Welsch 329).

뵐쉬는 상이한 문화들이 공존, 혹은 섞여있는 현대의 상황을 설명해 줄 듯한 '다문화성'과 '상호문화성' 개념 역시 근본적으로는 전통적인 문화개념, 즉 '한 민족 = 한 문화권'이라는 섬모양, 공모양의 문화모델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면서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다문화성'이란, 하나의 동일한 사회 내에 상이한 문화들이 공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개념 역시 개별문화를 여전히 동질적이고 잘 경계지어진 것으로 생각하

는 헤르더적인 개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경계긋기를 정당화하고 더 강력하게 경계를 긋고자 하기 때문에, 즉 내적으로는 동질화를 추구하면서 외부에 대해서는 경계를 긋는 이 개념을 계속 사용한다면 논리적으로 계토화 현상이나 문화근본주의, 소비니즘 혹은 문화적 분리주의에 이르게 된다고 보고 있다(Welsch 332-334). 또한 ‘상호문화성’에 대해서도 벨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상호문화성 문화모델을 주장하는 자들은, 과거의 전통적 문화모델은 필연적으로 문화 상호간에 갈등을 담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 그래서 “상호문화적인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려는 모델을 제시하지만, 섬모양, 공모양의 문화개념을 전제로 하는 한 그 후속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문제들이 바로 그런 전제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고전적 문화개념의 일차적 특성, 즉 문화의 분리주의적 특성 때문에 상호공존이 어렵고 구조적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유발시킨다는 것이다(Welsch 334-336). 다문화성이나 상호문화성 모두 마치 화장을 하듯이 피상적으로만 문제를 다룰 뿐이라고 지적한다.

(2) 혼종적 문화구조 설명을 위한 개념 ‘트랜스문화성’

벨쉬는 이런 기존 개념들을 비판하면서 오늘날의 문화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더 이상 ‘동질성’ 내지는 ‘분리성’의 특성을 띠지 않고 오히려 ‘혼합(Mischung)’, ‘상호침투(Durchdringung)’로 특징지어진다고 본다. 그래서 오늘날의 문화구조는 전통적인 문화개념을 **넘어서고** 전통적인 문화의 경계선을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트랜스문화적(transkulturell)으로 설명할 것을 제안한다.

벨쉬는 ‘트랜스문화성’이라는 개념 사용이 불가피한 이유를 거시적인 차원과 미시적인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오늘날 문화들의 변화된 모습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교통수단 및 의사소통체계

의 발전, 이주 및 경제적으로 서로 얽히고 종속되는 현상의 결과로 오늘날 동시대 문화들은 ‘혼종화(Hybridisierung)’로 특징지어지고, ‘침투(Infiltration)’ 현상이 문화전반에 나타나 대중문화, 고급문화에 두루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완전히 낯선 것이란 없고, 마찬가지로 완전히 자기고유의 것도 없다고 본다. 낯선 것도 물론 자기의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문화권 안에서 낯선 것이 아주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그 다양성의 정도는 바로 그 문화 바깥의 다른 문화들이 다양한 만큼 다양하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자기 고유의 문화와 타문화 사이의 명확한 경계선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본다(Welsch 336-9).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개개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트랜스문화적 특성을 살펴보고 있다. 뵐쉬는 “우리는 모두 문화적 혼혈아이다”(Welsch 339)라고 말하고 있다. 예컨대 살만 루시디나 네아플 같은 작가들을 생각해보면 그들은 **하나의** 고향에서만 성장하고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양한 나라 및 문화들과 관계하면서 자신들의 특성을 만들어 왔다. 그들의 문화적 구성은 트랜스문화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경우 당연히 문화적 정체성은 민족적 정체성과 동일시 될 수 없다는 것이다(Welsch 339-340).

요컨대, 거시적이든 미시적이든 문화는 트랜스문화적이라는 것이다. 과거의 문화개념은 맞지도 않고 쓸 수도 없으며, 과거의 문화개념으로는 문화들의 형식, 문화들 간의 관계방식, 개개인의 삶의 형식구조와 정체성을 잘못 그리게 되기 때문에 오늘날 문화개념은 트랜스문화적이어야만 한다고 뵐쉬는 본다. 그가 정의하는 ‘트랜스문화성’은 문화를 분리주의적으로 또는 배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그물코에 얽혀 있고 서로 포용하는 방향으로 이해할 것을 목표로 한다. 트랜스문화적 문화와 사회는 경계짓고 구별해내는 데에 역점을 두지 않고 연계성을 갖고 경계를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중시한다. 끊임없이 쉬이고 변화하는 역동적인 움직임, 과정성에 방점을 찍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형식의 삶과 만날 때에도 분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 간의 연계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런 연계가능성은 발전되고 확대될 수 있어서, 결국 하나의 공통된 삶의 형식을 만들어낸다고 본다. 서로서로 잘 지내며 공동의 삶을 실제로 발전시키는 것을 중요한 문제로 본다. 이를 위해 타문화에 대한 '이해'만으로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고 '타자와의 상호교류(Interaktion)'가 중요하다고 본다.

(3) 지구화 · 지역화의 현상과 '트랜스문화성'의 이중적 과정

빌쉬는 '트랜스문화성' 개념을 '다양한 실로, 다양한 방식으로 짜인 그물망' 이미지에 비유한다. 과거의 전통적인 개념에 의한 문화적 다양성은 분명히 경계 지어지고 구분되는 문화들이 나란히 놓여있는 식의 모자이크 모델이지만, 트랜스문화의 다양성은 상이한 그물망버전들 사이에서 생기며 세분화의 메커니즘도 더 복잡해진 모델이라고 한다. 다양화 및 세분화의 메커니즘은 더 이상 지리적인 경계나 민족적인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문화적인 상호교류의 과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런 새로운 방식의 문화적 다양성은 과거의 개념들에 비해 상호 연계 가능성이 높아 갈등보다는 공존을 더 용이하게 하고 과거의 분리주의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장점의 근거는 트랜스문화적 그물망들이 상이성을 지니고 있지만 항상 몇몇 요소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서, 그 공통적인 요소들을 토대로 상호 연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빌쉬는 이러한 문화의 공통성과 상이성을 동시에 형성하는 트랜스문화성의 '이중적 과정'에 주목하여, 지구화와 지역화의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재의 문화구조를 그 어느 개념보다 잘 설명해줄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그는 오늘날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현상을 단일화 혹은 동질화 경향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지구화 현상과 지역화 경향(주로 식민제국으로부터 독립한 아프리카국가들의 '종족주의(Tribalismus)')

같은 지역화 경향)의 대립으로 진단하고 있다. 또한 인간은 보편적이거나 지구적이기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특수하고 자기만의 고유성을 가지고 자 하여, 전지구적 획일화라는 멜팅팟 속에서 사라지기를 원하지 않고 특수한 정체성으로 자신을 부각시키고자 한다고 빌쉬는 생각한다. 물론 이때 특수성, 지역성은 인종적인 소속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들이 자신의 소속을 스스로 결정할 수도 있음을 강조한다. 문화적 경계 넘어 소위 동일화 과정 내에서도 동시에 새로운 차이들이 뒤이어 나타날 것이고, 상이함 내에서도 공통성이 생겨서 연계가능성과 경계넘기의 가능성도 생긴다고 본다. 이와같이 지구화 현상과 동시에 나타나는 지역화 경향, 또는 보편적이면서도 동시에 개별적인 성향을 트랜스 문화성의 이중적 특성이 잘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빌쉬 개념의 의의와 한계

빌쉬의 ‘트랜스문화성’ 개념제안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그가 전통적인 문화개념의 대표로 헤르더의 문화이론을 비판했는데, 사실 그의 헤르더 이해에는 문제가 있다. 헤르더가 ‘문화’라는 개념을 설정한 당시의 시대적인 맥락을 빌쉬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비판함으로써 “민중”을 “문화의 담지자”로서, “문화”를 “민중들의 삶의 형식”으로 보게 된 헤르더의 이론(참조. Hansen 217f.)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다. 헤르더를 직접 깊이 연구하지 않고, 몇몇 인용된 문장들만 가지고 섬모델, 공모델로 비유하여 헤르더의 문화개념을 민족과 인종에 기반한 동질화, 인종화, 그리고 동시에 문화적 분리주의 등으로 특징짓고 있으며, 헤르더를 일종의 ‘문화적 인종주의’ 이론가로 만들었다고 비판하는 경우도 있다 (Mecklenburg 97). 뿐만 아니라 빌쉬가 제안하는 ‘트랜스문화성’ 내지 ‘트랜스문화적’이라는 개념 자체의 모호성이 지적되기도 한다. 빌쉬 자신이 헤르더식의 전통적인 문화개념은 (허구적인) 민족개념과 밀접하게 연

결되어 있노라 비판하면서 대안으로 제시한 개념이 정작 그 자신의 텍스트에서 종종 “트랜스민족적(transnational)”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고, “문화”라는 개념이 “민족문화”, “사회”라는 개념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점도 비판받고 있다(Mecklenburg 97).

뵐쉬의 컨셉에 대한 비판 중 무엇보다도 비중있게 지적되어야 할 사항은 그의 개념 ‘트랜스문화성’의 ‘탈정치성’ 문제이다. 문화 간 접촉과 교류가 증폭하고 탈경계적 문화현상을 포착하는 일이 어렵지 않은 이 지구화 시대에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문화 간 교섭과 섞임과 혼용 내지 혼종화 과정을 포착하는 데 있어서 그의 개념이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끊임없이 변하는 문화적인 역동성, 움직임, 과정성을 포착하기에는 더없이 적절한 개념이다. 그러나 이 개념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간과되고 있다. 즉 경계를 넘어서 혹은 횡단하며 새로운 조합, 변용과 창조를 이루는 문화현상들이 나타남으로써 지리적, 인종적 경계와 같은 실체적인 경계의 ‘의미’가 축소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실체적 의미의 경계가 아주 사라지지도 않고 그로 인한 갈등, 예컨대 권력관계에서 비롯한 문화 간 위계화 현상, 소수종족 문화집단의 차별 등은 여전히 현존하는 사실이다(최현덕 311-2; Schulze-Engler 44-5; Mecklenburg 97). 또한 설사 기존의 경계가 일부 와해되었다고는 해도, 지그문트 바우만이 지구화의 영향으로 존재의 필요성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잉여인간들, 즉 “쓰레기가 된 인간들”(지그문트 바우만 24)이 양산되었다고 지적했듯이, 새로운 헤게모니적 권력관계에서 새로이 생성되는 경계, 새로운 불평등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지구화의 이면을 뵐쉬의 개념이 포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그가 말하는 트랜스문화적 그물망은 “더 이상 지리적인 경계나 민족적인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문화적인** 상호 교류의 과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개념을 규정하지 않았다는 앞서의 비판은 차치하고라도 그가 지구화와 지역화의

현상에 주목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그것도 ‘순수한’ 문화적인 교류에 역점을 두어 문화적인 상호교류의 과정이 대부분 정치, 경제적인 시스템과 맞물려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나 중심과 주변의 비대칭적인 역학관계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자기 고유의 것도, 낯선 것도 구분할 필요도 없고 자기 고유의 문화와 타문화 사이의 **경계**를 전혀 의식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이다. 뵐쉬의 개념은 “구체적인 힘의 관계에 대해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적 차이로 인해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도, 그로 인해 문화적인 자본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도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Blumentrath 17-8; Mecklenburg 97).

‘트랜스문화성’개념을 제안한 뵐쉬가 문화 간의 역동적인 교류, 섞임, 변용과 창조의 과정을 포착한다는 점에서는 ‘트랜스문화화’ 개념을 처음 사용한 오르띠스와 상당히 유사하다. 그러나 그가 각 문화적 맥락에 따른 정치적, 사회적 **‘경계’**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오르띠스와 현저하게 다르다. 뵐쉬 비판가들이 제기하는 ‘트랜스문화성’의 탈정치성 문제가 사실은 접두어 ‘trans-’의 의미자체에 있다기 보다는 뵐쉬의 문화론적인 구상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오르띠스나 라마의 경우에는 상당히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문제의식이 내포되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의 트랜스문화론은 뵐쉬적 구상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3. 문화학적 인문학 논의와 ‘탈경계 인문학(Trans-Humanities)’ 연구

1) 상호문화 및 트랜스문화 연구

김연수_접두어 ‘trans-’의 의미와 ‘탈경계 인문학(Trans-Humanities)’ 연구... 45

독일의 정신과학(Geistwissenschaft), 즉 인문학에서 방법론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문화학적인 패러다임을 도입하면서,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기는 해도 인문학 내의 분과학문 사이의 경계를 넘어 학제 간 연계 가능성을 열어놓는 효과도 낳았다. 이 과정에 거론된 '다문화성', '상호문화성', '트랜스문화성'에 관한 논의들을 고찰하면 문화학적 인문학 논의에서 접두어 'trans-'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독일에서는 1990년대부터 문화학적 전환이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사실 영국에서 문화연구가 성립되던 무렵 1960년대에 독일에서도 문화학적인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지만 다시금 더욱 문헌학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였다(Gutjahr 11). 그후 스테픈 그린블라트(Stephen Greenblatt)가 신역사주의적 저널 「재현들(*Representations*)」(1982)을 창간하던 무렵 1984년에 독일에서는 '상호문화적 독문학(Gesellschaft für die Interkulturelle Germanistik, GIG)'이라는 학회가 창립되었고, 이후 쾰른 대학의 인문학연구소 '상호문화 및 트랜스문화 연구센터(Zentrum für Inter- und Transkulturelle Studien, CITS)'에서와 같은 연구작업들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2001년 잡지 「문화시학 *KulturPoetik*」이 창간되면서 문화학적인 문학 내지 인문학 연구에 관한 논문들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에 한국어로도 번역된, 영문학자 안스가 뉴닝과 로이 줌머가 편집한 『문화이론과 문학연구』(2004)에서는 문화학이 학제적이거나 개별 학문 영역을 뛰어넘는 초학문적인 토론의 장으로서 학제간의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고 보면서, 문화학적 문학연구의 윤곽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다문화성, 상호문화성, 트랜스문화성' 개념에 대한 논의도 주로 별취의 견해 대한 의견들을 내놓으면서 진행되었다.

쾰른의 영문학자 하인츠 안토어(Heinz Antor)는 '상호문화 및 트랜스문화 연구'의 출발 문제인식을 기존 인문학 패러다임과 오늘날 현실세계 사이의 괴리에서 본다. 그가 말하는 '오늘날 현실세계관, 앤토니 기든스를

인용하고 있듯이, ‘지구화’로 인한 역동적이고 대립적인 현상들이다. 그는 “과거 분과학문적인 경계들과 전통들은 [...] 지금까지 전해져온 패러다임과 방법론만으로는 오늘날 세계 문화들의 이질적인 그물망을 제대로 포착할 수 없다”는 것이다(Antor 9). 그래서 간학제성(Interdisziplinarität)과 기존 분과 경계선 너머 대화의 장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인문학 변화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순수 문헌학적인 요리접시 가장자리선을 넘어가는 시선, 문화적인 콘텍스트를 더 명확하게 고려하는 자세, 지금까지 무시해왔거나 주변적인 것으로 취급해버린 문화 현상 및 담론들을 편견 없이 분석하려는 노력으로 우리의 학과들이 대학교 울타리 바깥에서 더 중요한 것들을 얻고 있다(Antor 9).

안토어는 다문화, 상호문화, 트랜스문화와 같은 개념을 규정할 때 아카데미의 상아탑 내에서의 이론적인 문제보다는 문화발전의 역동성에 실질적인 관여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또한 원칙적으로 반본질주의적(anti-essentialistisch) 입장에서 출발하고, 보편주의와 관련하여서는 반보편주의적(anti-universalistisch)이면서 동시에 보편주의를 부인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밝힌다(Antor 30-31). 예컨대 유럽중심적인 보편주의를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진리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반보편주의적이지만, 메타적인 차원에서 인간은 보편적인 욕구(자신의 입장갓기, 정체성구성, 정향성, 안전성 등)를 가지고 있고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보편적인 ‘기술’(문화)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는 보편주의적 입장을 취한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문화적인 내용의 차원에서 보편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이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문화적인 것에 대해 ‘anything goes’의 입장을 취하는 것도 반대한다고 밝힌다. 왜냐하면 이는 급진적-자유방임적

인내(Duldung)의 의미로 실은 아무런 ‘입장’이 없는 무관심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안토어도 트랜스문화성을 제안하는 별쉬를 일부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상호문화 및 트랜스문화 연구센터’의 이름에서 ‘다문화’개념을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를 밝힌다. 별쉬는 다문화성이나 상호문화성에는 헤르더적인 문화모델의 컨셉이 내재해있어서 트랜스문화성만을 주장하는 데 반해, 안토어는 이 세 개념이 모두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특성이 있을 뿐 그 목표설정에서 아주 유사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그가 ‘다문화’라는 개념을 포함시키지 않은 까닭은 바로 문화 간의 분리를 극복하려는 컨셉, 즉 문화 간의 경계와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대화적인 상호교류의 의지가 ‘다문화’개념에는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Antor 30). 그는 ‘대화성의 원칙(Dialogizitätsprinzip)’을 주장하면서, 『인정의 정치』로 유명한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와 테일러가 근거를 두고 있는 가다머(Hans Georg Gadamer)의 해석학을 인용하고 있다. 이때 그는 캐나다의 다민족, 다문화 정책을 이론적으로 정교화한 테일러의 ‘다문화주의’가 가질 수 있는 위험성, 예컨대 문화적 집단의 인정에 대한 권리주장이 암묵적으로 문화내적 갈등, 개인의 인권침해, 심지어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로 작동할 위험성 등의 문제까지는 언급하지 않는다.⁴⁾ 안토어에 따르면 상호문화성 및 트랜스문화성의 컨셉에서는 모두 자기 자신의 인식지평을 떠나서 타문화 혹은 타문화적 입장의 상이성과 대화를 위한 교류를 시도해야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성을 바깥의 시각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다문화성, 상호문화성, 트랜스문화성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를 놓고 논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각 “입장성(Positionalität)”을 기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즉 한 개

4) 다문화주의가 가질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국내에 발표된 진은영의 논문 「다문화주의와 급진적 인권」(『철학』 제95집, 2008)과 최현덕의 논문 「경계와 상호문화성-상호문화 철학의 기본과제」(『코기토』 제66집, 2009)참조.

념을 정해진 의미대로 사용하거나 혹은 사용하지 못하는 그 입장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독문학자 노버트 메클렌부르크(Norbert Mecklenburg)는 벨쉬의 헤르더비판부터 트랜스문화성의 비현실적, 탈정치적인 측면에 이르기까지 조목조목 비판을 하였다. 그는 결과적으로 문화현상을 ‘상호문화적’으로만도, ‘트랜스문화적’으로만도 설명할 수 없다고 보면서 “multi-, inter-대신에 transkulturell!”이라는 식의 벨쉬 제안은 구체적으로 문화현상을 분석하고자 할 때 실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본다(Mecklenburg 90-98). 트랜스문화성을 일종의 “대안개념”로 보기 보다는 “보완개념”로 볼 것을 제안한다.

또한 상호문화적인 영국소설들의 장르유형과 이론을 정립하고자 한, 독일의 영문학자 로이 쉰머(Roy Sommer)는 자신의 저서 『이주의 허구들(fictions of migration)』에서 상호문화성, 다문화성, 트랜스문화성을 상세히 다루며 개념정의를 시도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독특한 점은, ‘상호문화성’을 ‘다문화성’과 ‘트랜스문화성’의 상위의 개념으로 설정하고 자기 고유의 것과 낯선 것에 관한 제반관계를 총칭한다고 본다. 그는 ‘상호문화성’에서 자신의 연구방법론과 패러다임을 찾고자 시도하며, ‘상호문화성’은 문화들 간의 상호 이해의 가능성과 양태에 대한 철학적 논의들과 문화적 정체성의 생성을 기술하기 위한 문화학적인 컨셉들에 대한 철학적 논의들을 포괄한다고 본다. 반면에 ‘다문화성’ 개념에서는 주로 정치적인 논쟁을 지적하면서 다문화적인 한 사회 내에서 다수와 소수의 제반 관계에 관한 논의를 제시한다. ‘트랜스문화성’도 ‘다문화성’과 마찬가지로 ‘상호문화성’ 패러다임에 속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으로서 고전적인 동화모델(Assimilationsmodell)이나 차이모델(Differenzmodell)에 대한 일종의 낙관적인 대응컨셉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확고한 문화적 정체성을 해체하는 비전까지 보여줄 수 있는 유토피아적인 모멘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본다. 물론 트랜스문화성은 다문화성의 대안모델이거나 “경쟁모

텔”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다문화성을 계속 실행시켜 나아가는
컨셉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문화성’과 ‘트랜스문화성’, 모두 인
종적인 다양성과 문화적인 혼종화 현상을 다루고 담론적으로 평가하는
“상호문화적인 연속체(ein interkulturelles Kontinuum)”(Sommer 48)
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각 학자들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 논의를 전개시키고는 있지
만 벨쉬가 제안한 ‘트랜스문화성’의 개념만이 유일한 안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독일의 인문학자들은 ‘transkulturell’과 ‘interkulturell’ 개념
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병행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앞장에서
‘trans-’의 의미를 라틴아메리카에서 사용된 오르띠스와 라마의 이론에서
도 살펴본 것처럼, 현재 독일 내 라틴아메리카 연구자들의 논의에 관심을
기울여볼 필요가 있다. 라틴아메리카 연구는 대부분 탈식민주의적 관점
에서 논의되고 있다.

베를린의 라틴아메리카 연구자인 프리드헬름 슈미트-벨레(Friedhelm
Schmidt-Welle)는 라틴아메리카 문화이론의 컨셉들을 통해 상호문화 및
트랜스문화 연구의 토대 마련에 기여하고자 했다. 그가 보여준 문화이론
들은 위에서 살펴본 페르난도 오르띠스의 트랜스문화화 개념, 이를 계승
발전한 앙헬 라마의 트랜스문화화 이론, 그리고 안토니오 코르네호 폴라
르의 ‘혼종성’ 이론과 ‘이주하는 주체(migrierendes Subjekt)’라는 개념⁵⁾
을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적인 맥락에서 고찰하고 동시에 이를 보편적인
카테고리로 과장하지 않으면서 탈식민주의 논의나 상호문화 및 트랜스문
화성 토대연구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오르
띠스나 라마의 트랜스문화화 이론은 결국 문화적 혼혈론의 성격을 띠거
나 지배문화와 피지배문화 간의 갈등을 축소시키는 통일적인 라틴문화론

5) 폴라르의 혼종성이론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발표된 우석균의 논문 「라틴아메리
카의 문화이론들: 통문화, 혼종문화, 이중혼형성」(『라틴아메리카 연구』 제15집,
2002)도 참조.

을 보여주는 데 반해, 폴라르는 “모순적인 총체성”을 언급하면서 지배문화와 피지배문화 간의 갈등은 필연적이므로 혼혈론처럼 융합적인 문화론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폴라르는 문화적인 혼종성을 주체구성의 문제와 관련시켜 ‘혼종적인 주체’라는 의미의 ‘이주하는 주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즉 다양한 문화들 사이에서, 혹은 다양한 문화들 안에서 움직이는 주체가 그 문화들 사이의 모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증법적인 주체는 아니지만, 다양한 문화들의 전체들이 어느 정도 그 안에 내면화되어 소통을 위한 문화적 맥락이나 여지를 스스로 만든다고 본다. 그러면서 오늘날 문화 간 경계 내지 갈등을 다루는 소위 “경계문학(Grenzliteratur)”이 널리 퍼지고 있지만, 문화들 간 갈등의 해결은 그런 작풍텍스트에 작가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이런 이주하는 주체들이 다양한 문화적 콘텍스트들 사이를 ‘뛰어넘는 것’에 있다는 것이다. 주체들의 이러한 행위는 환영할 만한 것일 뿐만 아니라 때론 이것을 의식적으로 연출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폴라르에게서의 트랜스문화성은 이주하는 주체들이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문화 간 소통의 가능성을 실행에 옮기는 데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문화 간의 차이와 갈등을 숨기지 않고 그 사이를 넘나드는 주체의 행위성에서 트랜스문화성을 보는 경우를 라이프치히 대학의 라틴아메리카 연구자 Alfonso de Toro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토로는 탈식민주의적 시각에서 혼종성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몇가지 기본개념(예 트랜스문화성, 트랜스텍스트성, 트랜스분과성)을 설명한다. 그는 영국의 라틴아메리카 연구자인 존 크라니어스커스에 의거하여 접두어 ‘trans-’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접두어 ‘trans-’는 바로 문화적인 차이를 은폐하고 지구화라는 미명 아래 동질적이고 무역사적인 문화로, 생산성과 효율성의 원칙에 종속된 문화로 이끄는 행위를 함축하고 있지 않다. [...] 접두어 ‘trans-’는

문화적인 평준화 내지 순수하게 소비적인 문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위계적이고 개방적이며 노마드적인 대화를 말하며, 그런 대화로 상이한 정체성과 문화들이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키게 된다.(Toro 31)

토로의 정의에 따르면 ‘트랜스문화성’의 경우 문화와 문화 간의 경계를 넘거나 뚫고 지나가면서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도 각 문화의 콘텍스트를 도외시하여 ‘무역사성’에 빠지지도, 문화적인 ‘차이’를 백안시하지도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문화경계를 넘어가 경계를 일부 해체하면서 섞이고 변용되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면서도 경계 자체에 대한 의식을, 즉 경계의 역사적, 사회적 콘텍스트를 간과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2) 접두어 ‘trans-’ 의미와 ‘탈경계 인문학’ 연구

지금까지 라틴아메리카의 ‘트랜스문화화’라는 역사적 사례에서나 독일의 문화이론 및 그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에서 접두어 ‘trans-’가 지닐 수 있는 의미의 폭을 살펴보았다. 이 접두어가 그 자체로는 “뚫고 건너가서(quer hindurch)”, “넘어가서(über hinaus)”, 혹은 “저 건너편으로(jenseits)”를 의미하지만, 위에 살펴본 문화학적인 인문학 영역에서 사용되는 경우들을 참작하면 ‘inter-’의 의미와 상보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이(zwischen)”, “서로 마주하는(gegenseitig)”, “상호적인(reziprok)”의 의미층위도 논의의 맥락에 따라서는 함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로이 줌머가 진단하듯이, ‘다문화성’, ‘상호문화성’, ‘트랜스문화성’의 개념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정의하는 작업에서 여전히 정합성 있는 하나의 정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Sommer 295f.). 왜냐하면 오르띠스나 라마의 경우에서처럼 문화이론적인 개념설정이라는 것도 그 개념을 사용하는 주

체들이 서있는 콘텍스트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문화 이론적 개념들이란 일종의 기호계의 개념으로서 “고립된 정적 체계가 원칙적으로 불가능”(김수환 282)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하인츠 안토어가 제안하듯이, 각 개념정의를 놓고 갑론을박하기 보다는 개념사용자들의 입장성을 밝히고 기술하는 것이 보다 의미 있는 작업일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탈경계 인문학”이란 무엇이며, 이때 “trans-”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탈경계 인문학 연구자가 스스로 규정하면서 답변적으로 정련하는 작업에 달려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Trans-Humanities’의 접두어 ‘trans-’의 의미를 탈경계 인문학 연구자 자신의 입장, 관점, 위치에서 조정하며 규정한다면, 벨쉬가 제안한 “트랜스문화성”의 탈정치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오르티스나 라마의 “트랜스문화화”에 내포된 ‘라틴아메리카적인 시각’에 주목하겠다. 즉 라틴아메리카의 ‘트랜스문화화’ 개념에서의 ‘trans-’의 의미와 벨쉬의 ‘트랜스문화성’ 개념에서의 ‘trans-’ 의미 사이에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조우하는 혹은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섞이거나 변용되는 A와 B(와 C...) 사이의 ‘경계’에 대한 의식의 유무이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우에는 바로 경계에 대한 의식, 즉 자신들의 역사적 문화적 콘텍스트를 철저하게 의식하면서 트랜스문화화를 논했다. 다시 말해 문화 간의 상호 작용 및 변용과 혼종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문화 간의 차이나 역사성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아울러 여기에서 말하는 ‘경계’에 대한 의식은 바로 ‘trans-’의 의미에 ‘inter-’의 의미층위를 부가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탈경계 인문학’의 ‘trans-’의 의미를 규정한다면,

- 1) 경계를 넘어서고 혹은 가로지르고 횡단하면서 경계가 해체되거나 와해되면서 변용-혼종을 통해 새로운 것을 형성한다고 보는 의미층위와
- 2) 경계를 넘어서고 혹은 가로지르고 횡단하면서도 경계가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거나 새로이 생겨나는 의미층위

로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고려해야 될 또 하나의 축은

- a) 일상의 삶과 그 조건을 모두 포괄하는(자연, 생태도 포함하는) '세계'와 '인문학'이라는 학문적 체계 사이의 경계와
- b) 근대화를 거치면서 분과학문으로 체계화되면서 분과 간에 시스템적으로 그어진 경계

로 나누어 생각해 봐야 한다. 이렇게 2 가지 축의 4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탈경계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에 대해 답을 구하고자 하면, 다시금 2 가지 차원, 즉 ① 트랜스학문적(transwissenschaftlich) 차원과 ② 트랜스분과적(transdisziplinär) 차원으로 나누어 이 질문에 접근할 수 있겠다.

먼저 트랜스학문적 차원에서 보면, '탈경계 인문학'은 일상의 현실세계와 학문체계 사이의 경계를 넘어서고 가로지르고 횡단하면서 기존 인문학의 고답적인 폐쇄성 내지 상아탑과 현실의 이분법적 경계를 해체하는 인문학이다. 현실세계와 학문 사이의 경계가 상당히 상호침투적이고 소통적이어서 현실세계를 학문체계에서 포착하여 성찰하며 생산된 인문지식이 다시 현실세계로 유통되는 과정들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지향한다. (그러나 '학문'과 '현실' 사이의 시스템적으로 그어져있는, 두 영역을 구분하는 마지막 경계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다.) 사실 이러한 학문과 현실의 관계는 인문학의 존립이후 늘 상정되어 왔다. 그렇다면 이 시대 탈경계 인문학에서 문제시하는 현실세계는 어떠한 세계이고 기존의 인문학은 왜 그런 현실을 성찰해낼 수 없는가, 인문학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지면을 통해 보다 정치한

답변을 시도하고 여기서는 논의의 전개를 위해 거칠게 스케치하는 정도로만 언급하고자 한다.

탈경계 인문학은 ‘지구지역시대 탈경계 문화현상과 경험’에 주목한다. 오늘날 디지털기술과 매체의 발달로 지구화의 촉진과 동시에 대두하는 지역화 현상의 문제, 즉 전지구적·보편적 상황(trans-1) 및 지역적·특수적 상황(trans-2)에서 빚어지는 제반현상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다시 말해 인간·자본·노동 등의 이동과 움직임이 증대하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탈경계적 현상/유동적인 현실(trans-1)과 새로이 형성되는 경계 밖의 소수자/주변인의 (포함된) 배제 상황(trans-2), 이러한 문화변동, 세계와 생태환경의 변화에 따른 인간의 인식과 체험의 변화에 주목한다. 또한 이러한 물리적인 세계의 차원에서 문화변동을 가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적으로도 하나의 거대세계를 형성하며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매체의 세계에도 주목한다. 이 디지털 시대에는 정보와 지식의 경계완화 혹은 경계해체 현상(trans-1)이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지식은 과거 지식의 연장이면서도 아주 다른 성격을 띠며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다(백옥인 168). 예컨대 ‘정보의 지식화’ 혹은 ‘지식의 정보화’로 서로 섞이고 융합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빠른 속도로 생산해 내면서도 동시에 여전히 지식의 ‘개방성’과 ‘폐쇄성’, ‘수행성’과 ‘실천성’, ‘상품성’과 ‘탈상품성’, 개인성과 집단적 사회성 사이의 긴장과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trans-2). 따라서 탈경계 인문학은 문자와 정전 중심의 문헌학적 인문학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문자 이외의 다양한 매체의 발달을 인문학적으로 성찰할 뿐만 아니라, 이런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세계에서 나타나는 문화변동 현상자체를 텍스트화하여 인문학 연구대상의 외연을 확장한다.

두 번째 트랜스분과적 차원에서는 탈경계 인문학의 연구방법과 관련된 문제를 사유해볼 수 있다. 위의 연구대상을 다각도에서 접근하기 위해 각 분과적 경계 / 특수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서(trans-2), 동시에 연구대상의 총체적 접근을 위해 필요분과 간의 경계 및 학문과 현실 간의

기존 경계를 넘어 대화적이고 통합적인 공동연구의 방법(trans-1)을 모색함으로써 기존 인문학의 한계를 넘어서는 인문학, 탈경계 인문학을 구축한다. 탈경계 인문학 연구단은 기존 분과학문체계에 따른 학과들로 구성된 인문대학의 연구와 교육기능에 있어서 나타나는 분과적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탈경계 인문학 연구단과 인문대학의 유기적인 상호협동 작업을 통해 각 분과의 심화발전을 꾀하면서 동시에 융합적이고 통합적인 연구기획으로 이 시대의 요청에 따른 인문지식의 창출과 인문정신의 회복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오늘날 과학지식과 인문지식의 상호 대화를 시도하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학문 간의 ‘통합(integration)’의 과제가 과연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4. 나가는 말

본고에서는 ‘탈경계 인문학’의 접두어 ‘trans-’의 의미 고찰을 통해 탈경계 인문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스케치를 시도해보았다. 접두어 ‘trans-’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 최초로 이 접두어를 사용한 역사적 사례인 라틴아메리카 문화론의 경우와 독일 현대철학자 볼프강 뵐쉬의 컨셉을 살펴보면 이 접두어가 함축한 바 있는 의미들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오르티스나 라마의 라틴아메리카적인 논의에서는 문화적 접촉과 교차 및 혼성의 과정에서 문화 상호간의 경계 내지 각 문화적 컨텍스트에 대한 의식이 명백히 보이지만, 볼프강 뵐쉬의 컨셉에서는 오히려 문화 간의 비대칭적인 역학관계 및 경계에 대한 의식을 지우고 문화 간에 섞이고 변용되는 과정의 역동성에만 방점을 찍는 성향이 두드러진다. 뵐쉬의 컨셉으로는 지구화의 역기능으로 양산되는 새로운 종류의 사회내적 경계들과 불평등

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눈을 **뺏히**내수밖에 없는 한계를 드러낸다. 따라서 이 두 경우에서 보이는 ‘trans-’의 의미층위들을 모두 고려하여 “Trans-Humanities”의 연구대상과 방법에 관한 ‘트랜스학문적’ 차원과 ‘트랜스분과적’ 차원에서 정리해보았다. 학문과 일상/삶의 세계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고 가로지르면서도 두 영역 간에 시스템적으로 그어져 있는 경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간과하지 않음으로써 인문학이 끊임없이 삶의 현장에 대한 자기 성찰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삶의 세계/ 문화 자체를 다각도에서 총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존 인문학이 분과 간에 그어놓은 경계를 해체하고 넘어서는 공동의 연구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공동의 작업으로 각 분과의 고유성 자체를 완전 폐기할 수도 없음을 인정하면서 성찰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작업이 담론적인 수준에서 보다 정련되려면 다시 두 가지 차원에서 심도 깊은 성찰과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 인문학 고전 및 전통과 오늘날 인문학 사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트랜스문화적인 문제에 주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국의 근대화 과정과 더불어 인문학 형성과정을 되짚어 보면서 서구적인 인문지식의 수용과 전통적인 인문지식의 계승과 단절, 또는 변용과 창조적 융합의 측면들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한국 인문학의 전체 지형도 내에서 ‘탈경계 인문학’의 위상과 의의를 짚어보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앞서 그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는 디지털 매체 발달로 생산되는 지식의 특성도 역시 위에서 언급한 ‘trans-’의 의미층위들에서 보다 정치하게 관찰·분석하면서 오늘날 인문지식의 현주소를 밝히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추후의 과제로 열어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수환. 「경계 개념에 대한 문화기호학적 접근: 구별의 원리에서 교환의 메커니즘으로」. 『탈경계인문학 총서1-지구지역시대의 문화경계』. 이화인문과학원. 서울: 이화여자대학출판부, 2009. 272-298.
- 백옥인, 송성수 외7인. 『새로운 인문주의자는 경계를 넘어라』. 서울: 고즈윈, 2005.
- 안스가 뉘닝, 로이 줌머. 『문화이론과 문학연구』.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5.
- 우석균. 「페르난도 오르티스의 통문화론과 탈식민주의」. 『Revista Iberoamericana』 13(2002): 181-197.
- _____.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이론들: 통문화, 혼종문화, 이중혼형성」. 『라틴아메리카연구』 15(2002): 283-294.
- 존 크라니아스커스. 「번역과 문화횡단 작업」. 『혼적』. 김소영, 강내희 옮김. 서울: 문화과학사, 2001. 315-332.
- 지그문트 바우만. 『쓰레기가 되는 삶들』. 정일준 옮김. 서울: 새물결, 2008.
- 진은영. 「다문화주의와 급진적 인권」. 『철학』 95(2009): 254-283.
- 최재천, 주일우. 『지식의 통섭, 학문의 경계를 넘다』. 서울: 이음, 2007.
- 최현덕. 「경계와 상화문화철학」. 『코기토』 66(2009): 301-329.
- Antor, Heinz. "Multikulturalismus, Interkulturalität und Transkulturalität: Perspektiven für interdisziplinäre Forschung und Lehre." *Inter- und Transkulturelle Studien*. Ed. Heinz Antor. Heidelberg: Universitätsverlag, 2006. 25-40.
- Blumentrath, Hendrik [u. a.]. *Transkulturalität. Türkisch-deutsche Konstellationen in Literatur und Film*. Münster: Aschendorff Verlag, 2007.
- Gutjahr, Ortrud: "Vorwort zur Sektion 'Literaturwissenschaft als Kulturwissenschaft'." In: Peter Wiesinger (Hg.): *Zeitwende-Die Germanistik als dem Weg vom 20. ins 21. Jahrhundert. Akten des X. Internationalen Germanistenkongress Wien 2000. S. 11-12*.
- Mecklenburg, Norbert. *Das Mädchen aus der Fremde. Germanistik als interkulturelle Literaturwissenschaft*. München: Judicium, 2008.
- Ortiz Fernando. *Cuban Counterpoint, Tobacco and Sugar*. tr. Harriet de Onis. Durham a. London: Duke UP, 1995.
- Schmidt-Welle, Friedhelm. "Transkulturalität, Heterogenität und

- Postkolonialismus aus der Perspektive der Lateinamerikastudien." *Inter- und Transkulturelle Studien*, Ed. Heinz Antor, Heidelberg: Universitätsverlag, 2006. 81-94.
- Schulze-Engler, Frank. "Von ‚Inter‘ zu ‚Trans‘: Gesellschaftliche, kulturelle und literarische Übergänge." *Inter- und Transkulturelle Studien*, Ed. Heinz Antor, Heidelberg: Universitätsverlag, 2006. 41-54.
- Sommer, Roy. *Fictions of Migration*. Trier: Wissenschaftlicher Verlag, 2000.
- Toro, Alfonso de. "Jenseits von Postmoderne und Postkolonialität. Materialien zu einem Modell der Hybridität und des Körpers als Transrelationalem, Transversalem und Transmedialem Wissenschaftskonzept." *Räume der Hybridität*, Ed. Christof Hamann u.a. Hildesheim u.a.: Georg Olms Verlag, 2002. 15-53.
- Welsch, Wolfgang. "Transkulturalität." *Jahrbuch Deutsch als Fremdsprache* 26(2000): 327-351.

The Meaning of the Prefix “Trans-” and Thinking About Research in Trans-Humanities

Kim, Yeon-Soo
(Ewha Womans University)

In this article, I try to think about research methods in our trans-humanities agenda by bringing the meaning of the prefix “trans-” into focus. For this purpose, the concepts of “transculturation” and “transculturality” in cultural and literary studies should be analysed. For example, there is the oldest concept of “transculturation,” from the Cuban anthropologist Fernando Ortiz in the 1940s, which was incorporated and further developed within the realm of literary studies by the Uruguayan critic Angel Rama in the 1970s, as well as the concept of “transculturation” used by the German philosopher Wolfgang Welsch and the discussions concerning his concept in German cultural and literary studies.

On the basis of this paper’s analysis, the meaning of the prefix “trans-” in our trans-humanities agenda can be modified in accordance with cultural and scholarly contexts. The trans-humanities are trans-scholarly, which means that this sort of humanities crosses the boundary between the real world and the

academy and has relevance to reality beyond the walls of the university. The boundary between outside reality and the academy is permeable, so the humanities of this sort are communicable and interactive. Additionally, the trans-humanities are transdisciplinary, a point relevant to research methods. In order to research phenomena in the glocal area, the disciplines must be open, communicating and cooperating with other disciplines.

주제어: 다문화 (multiculture), 상호문화 (interculture), 트랜스문화 (transculture), 경계 (boundary), 인문학(humanity)

논문제출일: 2010. 08. 15
심사완료일: 2010. 09. 01
게재확정일: 2010. 09. 01

김연수_접두어 'trans-'의 의미와 '탈경계 인문학(Trans-Humanities)' 연구... 61